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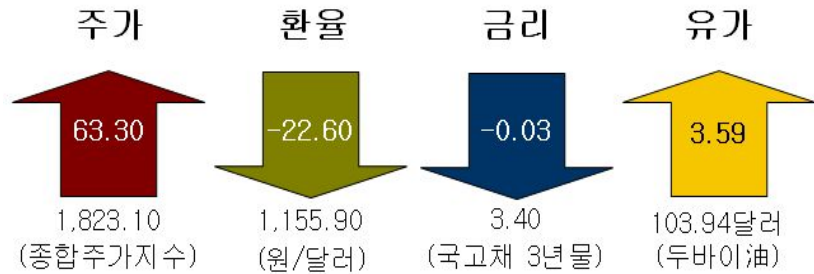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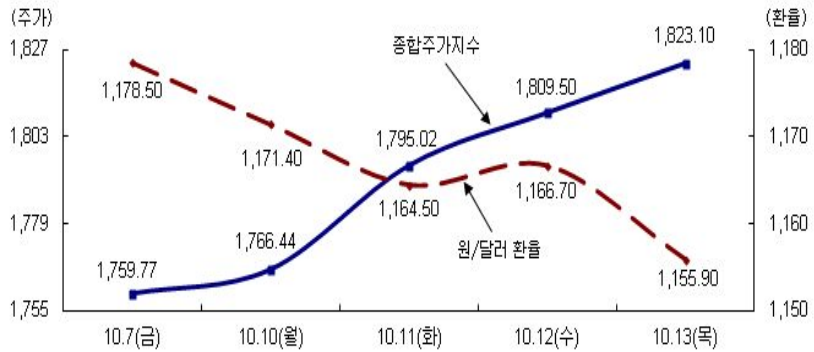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외화내빈의 수출구조 개선해야
- 무역 1조 클럽 이후의 6대 중점 과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7~10.13)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외화내빈의 수출구조 개선해야 - 무역 1조 클럽 이후의 6대 중점 과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김 민 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Executive Summary

□ 외화내반의 수출구조 개선해야 - 무역 1조 클럽 이후의 6대 중점 과제

■ 한국 무역 현황 및 성과

한국은 1947년 무역 2.6억 달러로 처음 1억 달러 선을 넘어선 이후 1988년 무역 1천억 달러를 달성했다. 그리고 다시 23년 만인 2011년 말에 무역 1조 달러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다. 무역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주요 수출 상품 및 국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출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1961년 철광석, 중석, 무연탄 등 천연자원 중심에서 1970년 이후 경공업 제품, 1980년 이후 중공업 제품으로, 2000년대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제품으로 진화했다. 수출 상대국 순위 1위 국가는 1954년 이후 미국, 1960년 일본, 그 이후 2002년까지 다시 미국이었으나 2003년부터 중국이 1위로 부상했으며 對개도국 무역 비중이 급증했다. 또한 한국은 EU, 미국, 아세안 국가들과 FTA 체결을 통해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했다. 1970년대 이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플러스로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경제성장률 6.2%에 대해 수출의 기여도는 6.8%p로서 경제회복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했다. 무역 1조 클럽에 우리보다 먼저 가입했던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과 무역구조의 질적 측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무역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 한국 무역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

첫째, 한국 수출의 고부가가치화지수가 2010년 현재 101.2로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0년 주요 수출 선진국의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114.7로 2005년 100에 비해 상승세를 나타내며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는 개선세가 미흡하다. 둘째, 최종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 중간재 비율이 한국은 37%로 미국의 2.5배에 해당한다. 선진국의 경우, 수입 중간재의 비율이 미국 15%, 중국 20%, 일본 17%, 독일 24%인데 비해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셋째, 수출지역의 다변화 정도를 수출상품 기준으로 나타내는 수출지역 침투지수(Index of export market penetration)가 2010년 기준 독일 113.1, 미국 118.5, 중국 116.7인데 반해 한국은 56.9(2009년)로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수출지역 다변화가 미흡하다. 넷째, 수출품목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는 2010년 기준 한국이 0.046으로 미국(0.012)보다 3.8배나 높고, 중국 0.026, 독일 0.019, 일본 0.030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수출품목의 다양성이 매우 낮다. 주요 수출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수출 주력품목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가 74개로 미국(633개)의 12%, 일본(230개)의 32% 수준에 불과하며, 독일 852개, 중국 1,239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서비스 수출 시장이 2000~2009년 연평균 9.4%로 증가한 반면 한국의 서비스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0년 2.0%에서 2009년 1.7%로 오히려 감소해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서비스 수출 세계 시장 점유율은 미국 14.1%, 독일 6.8%, 중국 3.8%, 일본 3.8%를 차지해 한국에 비해 높다.

■ 시사점

무역 1조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한국 수출은 양적으로 많이 성장한 반면에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 무역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수출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 등 잠재력이 큰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핵심 부품·소재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 수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동아시아 FTA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무역 중심국으로 부상해야 한다.

< 외화내빈의 수출구조 개선해야 >

한국의 무역 현황 및 성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수출은 전년대비 20.3% 증가한 5,610억 달러, 수입은 24.8% 증가한 5,305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 규모가 1조 915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한국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 개막이라는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 무역구조의 질적인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한국 무역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	
수출 고부가가치화지수 2005년 수준 정체	주요 수출국가의 수출제품 고부가가치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2010년 현재 한국은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지연되며 2005년 수준에 머물고 있음
수입 중간재 비율 37%로 미국의 2.5배	최종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 중간재의 비율이 한국은 37%로 미국(15%), 중국(20%), 일본(17%), 독일(2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한국의 수출지역 침투지수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수출지역 침투지수가 2010년 독일 113.1, 미국 118.5, 중국 116.7인 반면 한국은 56.9로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수출지역 다변화 개선이 미흡
수출품목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HHI가 한국은 미국의 3.8배 수준	수출품목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는 2010년 기준 한국이 0.046으로 중국 0.026, 독일 0.019, 일본 0.030, 미국 0.012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수출품목의 다양성이 낮음
수출 1위 품목 74개로 미국의 12% 수준	세계 수출 경쟁력 1위 품목 수를 보면 한국은 74개로 중국 1,239개, 미국 633개, 독일 852개, 일본 230개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서비스 수출 경쟁력 2000년보다 하락	세계 서비스 수출 시장이 2000~2009년 연평균 9.4%로 증가한 반면 한국 서비스 수출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00년 2.0%에서 2009년 1.7%로 오히려 감소하여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오히려 하락

시사점	
시사점	무역 1조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한국 수출은 양적으로 많이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에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과제	고부가가치형 수출구조로 전환, 수출지역 다변화, 핵심 부품 소재 산업의 육성,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 수출 경쟁력 제고 등 수출구조의 질적인 개선이 시급함

1. 한국의 무역 현황 및 성과

○ (현황) 1988년 무역 1천억 달러 달성 이후 2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¹⁾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음

- 무역규모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 2011년 1조 915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1947년 2.6억에 불과하던 무역규모가 1988년 1,125억 달러로 성장, 2005년 5,457억 달러로 확대됨. 2005년 5천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6년 만에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을 앞두고 있음
- 무역규모가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 무역의존도가 꾸준히 상승하여 1963년 24%에서 2010년 88%로 상승

< 무역 규모, 국내총생산, 무역의존도 추이 >

	1947년	1963년	1967년	1974년	1988년	2005년	2010년	2011년
무역규모	2.6억	6.5억	13.2억	113억	1,125억	5,457억	8,916억	10,915억
국내총생산		27억	42억	194억	1,923억	8,447억	1조 143억	
무역의존도		24%	31%	58%	59%	65%	88%	

자료 : 무역협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경제 60년사』

주 : 1) 국내총생산은 명목기준임.

2) 무역의존도 = (무역규모/국내총생산)*100.

3) 1947년 데이터는 한국경제 60년사에서 추출

- 수출 상위 5대 품목은 1961년 철광석, 중석, 무연탄 등 천연자원 중심에서 1970 이후 경공업, 1980년 이후 중공업 제품으로, 2000년대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제품으로 진화함
- 천연자원 중심의 수출에서 경공업 제품으로 전환, 2000년대 들어서는 IT 제품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됨

< 수출 상위 5대 품목 >

	1961	1970	1980	1990	2000	2010
1	철광석	섬유류	의류	의류	반도체	선박
2	중석	합판	철강판	반도체	컴퓨터	집적회로반도체
3	생사	가발	신발	신발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4	무연탄	철광석	선박	영상기기	석유제품	승용차
5	오징어	전자제품	음향기기	선박	선박	자동차부품

자료 : 산업자원부(1961-2000), 『한국경제 60년사』 (1961-2000), 무역협회(2010)

주 : 무역협회 기준은 MITC 4단위 기준임.

1)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선 나라는 미국(1992년), 독일(1998년), 중국(2004년), 일본(2004년), 프랑스(2006년), 이탈리아(2006년), 영국(2007년), 네덜란드(2007년) 총 8개국이며 이 보고서에서 비교대상 국가 4개(미국, 독일, 중국, 일본)를 선정하여 분석함.

- 우리나라 수출 상대국 순위를 살펴보면, 수출 상위 1위 국가는 1954년 미국에서 1960년 일본으로 전환, 그 이후 2002년까지는 미국이었으나 2003년 중국으로 전환되며 대개도국 무역 비중 급증
- 중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 수출 1위 파트너 국가로 성장함

< 수출 상위 5대 국가 >

	1954	1960	1971	1980	1990	2000	2010
1	미국 (56.3)	일본 (61.5)	미국 (49.8)	미국 (26.3)	미국 (29.8)	미국 (21.8)	중국 (25.1)
2	일본 (32.9)	미국 (11.1)	일본 (24.5)	일본 (17.4)	일본 (19.4)	일본 (11.9)	미국 (10.7)
3	-	-	-	사우디아라 비아 (5.4)	홍콩 (5.8)	중국 (10.7)	일본 (6.0)
4	-	-	-	독일 (5.0)	독일 (4.4)	홍콩 (6.2)	홍콩 (5.4)
5	-	-	-	홍콩 (4.7)	싱가포르 (2.8)	대만 (4.7)	싱가포르 (3.3)
5개국	100	-	-	58.8	62.2	55.3	50.5
미국, 일본	89.2	72.6	74.3	43.7	49.2	33.7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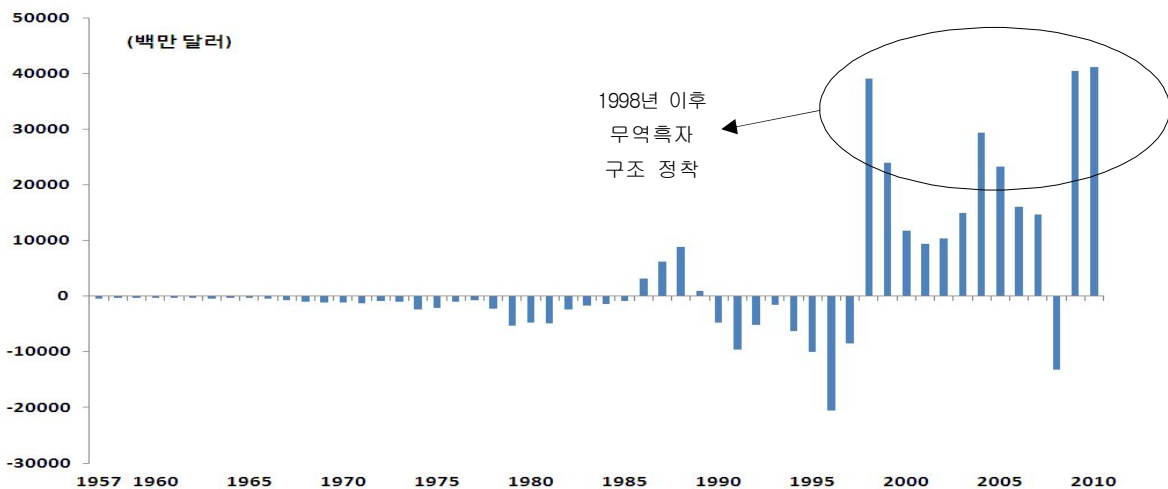
자료 : 『한국경제 60년사』(1954-1971), 무역협회(1980-2010)

주 : 1) 1980년 이전 수치는 국가별 상세데이터가 없음.

2) 1954년 수출 대상국은 5개국, 1960년은 19개국에 불과함.

-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다 1980년대 후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하지만 다시 적자로 전환되었으나 1998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
-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에 따라 1998년 이후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적자로 전환, 하지만 2009년 흑자로 전환되며 무역수지 흑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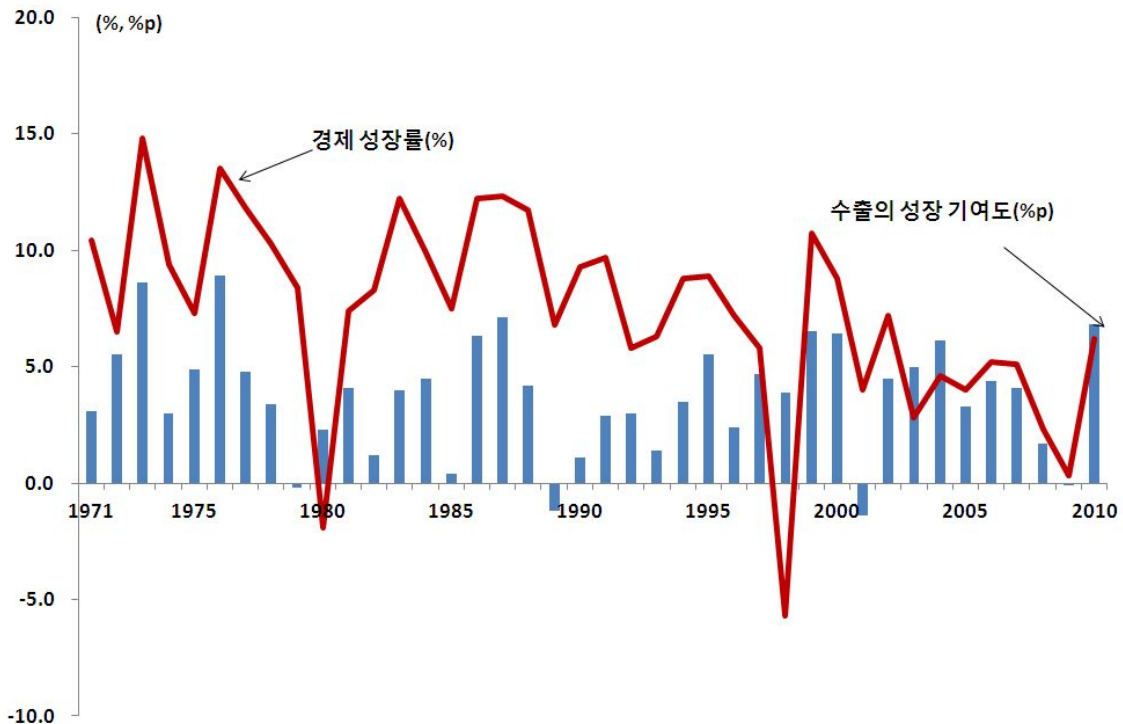
< 무역수지 추이 >



○ (성과)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매우 높고 세계 총 수출 중 한국의 총 수출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플러스를 나타내며 높은 수준을 유지, 이에 따라 수출은 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0년 경제성장률 6.2%에 대해 수출의 기여도는 6.8%p로서 경제 회복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

< 경제성장률과 수출의 성장 기여도 >



자료 : 한국은행
 주 :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재화 F.O.B 기준임.

- 한국의 수출규모가 증가하며 세계 수출 상품 시장 점유율 상승
-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도 2010년 3.11%로 1990년 대비 0.87%p 상승하며 성장세를 나타냄
- 독일, 미국, 일본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는 반면 중국은 급격하게 상승

<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

	중국	독일	일본	미국	한국
1990	-	13.49	9.74	13.10	2.24
1995	3.06	10.10	8.96	11.67	2.58
2010	3.52	7.20	6.54	10.67	2.44
2005	6.63	8.19	4.96	7.62	2.48
2010	11.40	8.58	5.28	8.41	3.11

자료 : WITC, UN Comtrade, IMF

2. 한국 무역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

○ 한국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 개막이라는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 무역구조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①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지수 2005년 수준에 정체) 주요 선진국의 수출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내는 반면 한국은 2005년 수준에 정체

- 2010년 주요 수출 선진국의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2005년에 비해 상승세를 나타내며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2010년 현재 2005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09년 주요선진국의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114.7로 2005년에 비교해 많이 개선된 반면에 한국은 2009년 90.5로 크게 하락, 2010년 현재 101.2로 2005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반면에 미국, 일본의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2010년 기준 각각 115.2, 108.5로 2005년 대비 향상되고 독일도 2009년 113.1로 2005년 대비 향상

-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구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수출 고도화가 미흡하며 질적으로 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이 결여되어 있음

· 한국은 수출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진 반면에 수출의 질적 성장은 미흡

< 주요국의 수출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수 >

(2005=1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선진국	100	103.3	111.7	121.5	110.2	114.7
미국	100	103.6	108.6	115.2	109.9	115.2
독일	100	101.7	113.4	122.2	113.1	n.a.
일본	100	97.7	98.6	105.6	104.3	108.5
한국	100	100.6	103.8	108.4	90.5	101.2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주 : 고부가가치화지수란 수출단가지수를 수출물가지수로 나눈 수치임

② (높은 수입중간재 비율, 낮은 외화가득률) 최종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가 37.4%로 미국의 2.5배에 해당하며 매우 높고, 이에 따라 외화가득률도 하락세를 나타냄

- 한국의 주요 수출품의 중간재 및 관련주요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이 매우 낮음에 따라 수출이 증가해도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및 중간재가 더 빨리 증가하여 수입 의존적 수출 구조 심화
- 한국은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중간재 비율이 2000년 32.3%에서 37.4%로 증가.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중간재 비율이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
- 미국은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중간재 비율이 2000년 11.6%에서 2008년 15.2%로 증가, 일본은 동기간 11.3%에서 16.9%로 증가
- 독일은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중간재 비율이 2000년 23.3%에서 2006년 24.4%로 증가, 중국도 2000년 19.0에서 2008년 19.7%로 소폭 증가

<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중간재 비율 >

(%)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한국
2000	11.6	11.3	23.3	19.0	32.3
2008	15.2	16.9	24.4	19.7	37.4

자료 : OECD, 『Globalization and trade flows: what you see is not what you get』, 2010. 10
Federal Statistical Office (FSO), Germany, 『Import content of exports』

주 : 독일은 2000년과 2006년 자료임.

- 수입중간재 비율의 증가에 따라, 수출의 외화가득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03년 외화가득률이 61.0%이었으나 2008년 51.8%로 하락, 2009년 52.5%로 2008년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2003년과 비교해서 8.5%p하락

< 한국 수출의 외화가득률 추이 >

(백만달러,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수출액	193,817	253,845	284,419	325,465	371,489	422,007	363,534
외화가득률	61.0	59.9	57.2	53.8	53.3	51.8	52.5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7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 2008. 9, 『2009년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2010. 7

주 : 외화가득률=부가가치유발액/총 수출액

③ (한국의 수출지역 침투 지수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수출상품 기준으로 수출지역 다변화를 나타내는 '수출지역 침투지수'²⁾(Index of Export Market Penetration)가 한국의 경우 독일, 미국, 중국에 비해 낮음

- 수출지역의 다변화 정도가 독일, 미국, 중국은 매우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개선정도가 이들 국가와 비교해서 매우 미미한 수준
- 중국, 독일, 미국의 '수출지역 침투지수'가 2000년 각각 58.2, 77.9, 73.1에서 2010년 116.7, 113.1, 118.5로 크게 상승하여 이들 국가는 더 많은 지역으로 수출하며 수출 다변화 개선이 이루어짐
- 반면에 한국의 '수출지역 침투지수'가 2000년 40.7에서 2009년 56.9로 다소 개선은 되었으나 수출 지역의 다변화 개선 속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수출지역 침투지수'가 2000년 45.2에서 2010년 66.2로 상승하며 수출 지역 다변화가 다소 개선

< '수출지역 침투지수' 추이 >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미국
2000	58.2	77.9	45.2	40.7	73.1
2001	59.3	76.6	43.8	41.3	72.3
2002	61.1	79.4	43.9	41.5	72.3
2003	65.0	79.5	42.9	42.5	73.1
2004	67.1	80.2	43.0	43.9	74.4
2005	70.7	80.1	44.0	44.5	75.4
2006	73.4	81.4	44.6	45.2	76.1
2007	77.2	82.8	46.4	46.8	79.6
2008	84.1	88.2	49.6	51.9	86.5
2009	89.9	96.8	51.5	56.9	91.6
2010	116.7	113.1	66.2	-	118.5

자료 : WITC, UN Comtrade

주 : SITC revision 3 3digit을 이용해서 수치를 산출함

2) '수출지역 침투지수'는 Brenton and Newfarmer (2007)의 『Watching more than the Discovery channel : export cycles and diversification in development』 저널에서 개발된 지수이며 정의는

$$\frac{\sum_{i \in I_j} \sum_k Y_{ijk}}{\sum_{i \in I_j} \sum_k Z_{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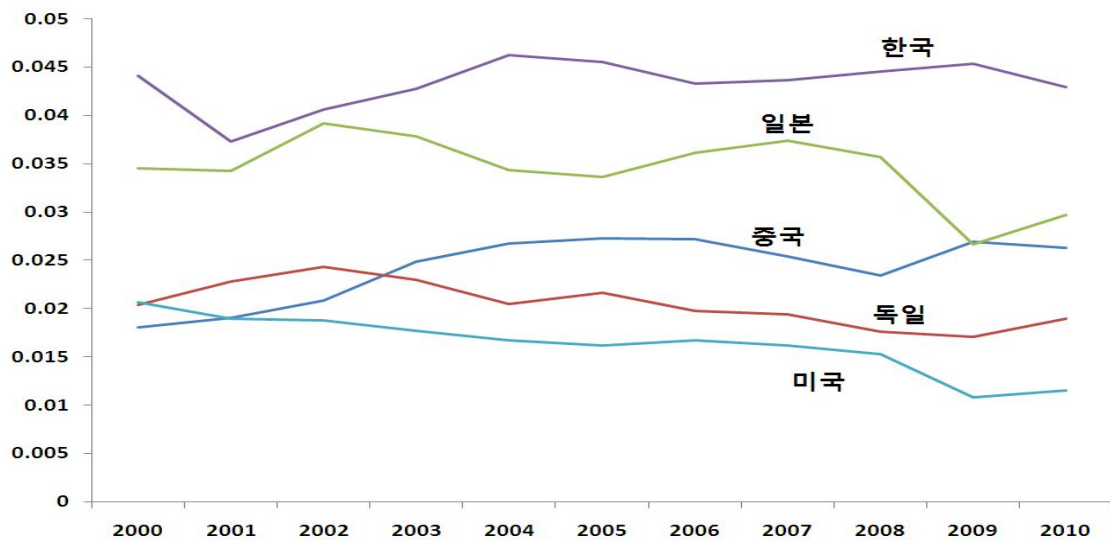
, 수출국가 j, I_j set of products i, Y_{ijk}=1 for X_{ijk}>0 else Y_{ijk}=0 & Z_{ik}=1 for M_{ik}>0 else

Z_{ik}=0, X_{ijk}는 수출국가 j의 수출품 i가 수입국 k에 수출되는 수출액, M_{ik}는 수입국 k의 수입품 i의 수입액 (the ratio of the actual number of bilateral trade flows to potential bilateral trade flows)로 수출국가의 수출상품을 고려해 만든 수출지역 다변화 지수로 이 지수가 높을수록 수출지역의 다변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이 지수가 낮을수록 수출지역의 다변화가 미흡한 것을 의미함

④ (수출품목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HHI가 한국은 미국의 3.8배 수준) 주요 수출 선진국과 비교해 수출 주력품목이 적어 수출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다양성 결여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수출품목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쉬만·허핀달 지수³⁾ (Hirschman Herfindahl Index, HHI)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이 수출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아, 수출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2010년 기준 중국, 독일, 일본, 미국의 HHI는 각각 0.026, 0.019, 0.030, 0.012로 한국의 0.046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 한국은 수출품목 다양성은 매우 미미한 수준
- 한국의 HHI는 2000년 0.044에서 2001년 0.037로 급감했으나 2009년 0.045, 2010년 0.043을 기록하여, 지난 10년간 수출품목 다양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소수 수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출품목 다양성이 결여된 한국은 세계 수출경기의 위축으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할 경우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남

< 허쉬만·허핀달 지수(HHI)⁴⁾ 추이 >



자료 : WITC, UN Comtrade

주 : SITC revision 3 3digit을 이용해서 수치를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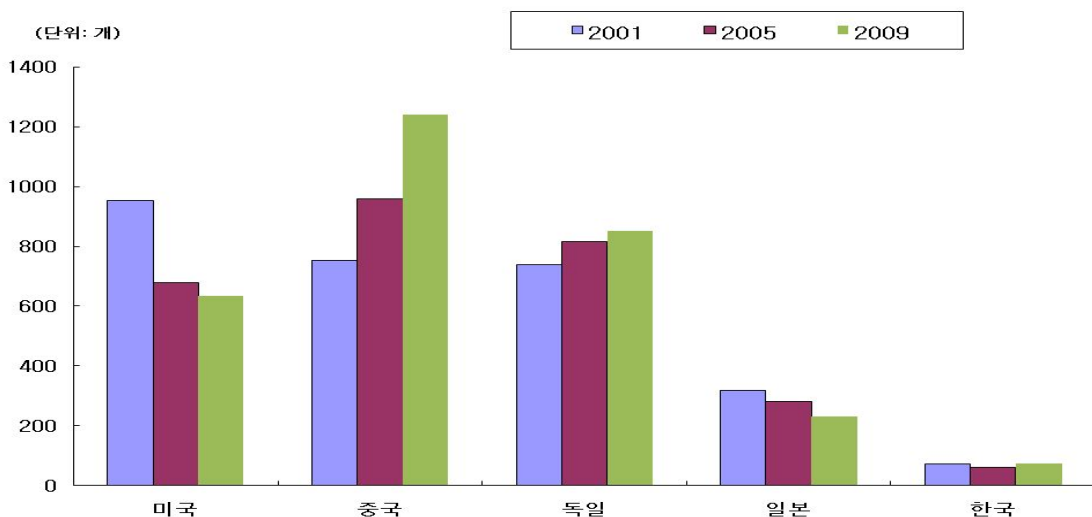
3)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는 흔히 산업집중도 측정방법의 하나로 당해 산업의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을 합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전체 수출액 대비 수출품목의 비중을 이용해 수출품목의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활용되고 있음

4) Hirschman Herfindahl Index = $\sum_{i=1}^N \left(\frac{x_i}{X}\right)^2$, x_i 는 상품 i 의 수출액, X 는 전체 수출액으로 HHI 수치가 높을수록 전체 수출이 소수의 수출 품목으로 집중되어 있어, 수출품목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

⑤ (수출 1위 품목 74개로 미국의 12% 수준)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수가 주요국과 비교해서 매우 적음에 따라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이 부족

- 세계 수출 경쟁력 1위 품목 수를 보면 한국은 주요 수출 국가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한국은 2009년 기준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74개로 2005년 59개 대비 증가했으나 중국, 일본, 독일, 미국에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중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2005년 958개에서 2009년 1,239개로 급증하였고 독일은 2005년 815개에서 2009년 852개로 소폭 증가
 - 반면에 미국은 2005년 678개에서 2009년 633으로 감소, 일본도 동기간 280개에서 230개로 감소
- 수출액 기준으로 한국 수출은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 기준으로는 세계 13위를 차지
 -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가 저조하다는 것은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이 부족함을 의미

<주요국의 세계수출 1위 품목 수5)>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9년 우리나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조사」, 2011. 7.

5)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등 상품은 HS 6단위기준, 세계 수출총액이 50,000달러 이상인 품목 총 4,969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⑥ (서비스 수출 경쟁력 2000년 보다 하락) 한국의 제조업 수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에 서비스 수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하며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한국의 제조업 수출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에 세계 서비스 수출 점유율은 2009년 19위로 2000년 12위에서 오히려 하락
- 미국의 서비스 수출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00년 18.7%에서 2009년 14.1%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차지
- 독일은 2000년 5.4%에서 2009년 6.8%로 증가, 중국도 동기간 2.0%에서 3.8%로 증가, 반면에 한국은 2000년 2.0%에서 2009년 1.7%로 오히려 감소

< 서비스 수출 세계 시장 점유율 추이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	18.7	17.9	17.1	15.5	14.9	14.6	14.3	13.9	13.5	14.1
독일	5.4	5.7	6.1	6.3	6.3	6.4	6.7	6.6	6.7	6.8
일본	4.7	4.4	4.1	3.9	4.0	4.1	4.1	3.8	3.8	3.8
한국	2.0	1.9	1.7	1.7	1.8	1.8	1.7	1.8	2.0	1.7
중국	2.0	2.2	2.5	2.5	2.8	3.0	3.2	3.6	3.8	3.8

자료 : WTO

- 한국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서비스 수지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규모도 확대됨

< 한국의 서비스 수지 추이 >

(억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서비스수지	-20.4	-29.7	-64.4	-57.9	-59.6	-99.5	-133.3	-119.7	-57.3	-66.4	-112.3

자료 : 한국은행

- 세계 서비스 무역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비스 수출 시장은 상품 수출 시장보다 충격이 약하게 나타남
- 총 수출 시장 중 상품시장의 규모는 2001년 81%에서 2009년 79%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01년 19%에서 2009년 21%로 증가
- 세계 서비스 수출 시장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성장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고용 및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세계 시장 증가율 추이 >

(십억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상품	6,191	6,492	7,586	9,218	10,489	12,112	14,001	16,117	12,490	8.11%
서비스	1,487	1,599	1,836	2,222	2,488	2,823	3,388	3,826	3,350	9.44%

자료 : WTO

3. 시사점

○ (시사점) 무역 1조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한국 수출은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질적 개선은 아직 미흡한 상황에 있음

-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질적인 개선을 통해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획득하는 것이 향후 무역 2조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임

○ (과제) 수출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잠재력이 큰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핵심 부품·소재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서비스 산업 확대를 통한 서비스 수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고 또한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무역 중심국으로 부상해야 함

- (수출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성장잠재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 신장품을 개발하고,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으로 수출상품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및 부품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수출품목의 개발을 확대

- (잠재력이 큰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해 세계 경기침체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실적의 급락이라는 리스크를 완화

· 고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수출 진흥 대책을 수립하여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수출 전략 마련

- (핵심 부품·소재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수입의존적 수출구조의 개선을 위해 수출품 관련 주요 핵심 부품·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수입의존적 수출구조를 개선함

· 한국 부품·소재의 수출 확대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첨단 부품·소재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

· 일본의 첨단 부품·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위해 산·학·연 협동 싱크탱크 육성

- (서비스 산업 확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세계 서비스 수출 시장의 성장세가 세계 상품 수출 시장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상품 수출 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세계 서비스 수출 시장 확대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성장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서비스 수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 구축) 현재 우리나라는 유럽과 동아시아, 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

경제연구본부 김민정 연구위원(02-2072-6212)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1.5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1.6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0.5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5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2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9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0월7일	10월13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2.08	2.18	0.10%p
	엔/달러	92.93	88.43	81.19	76.65	77.23	0.58¥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3426	1.3789	0.0363\$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1,103	11,478	375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8,606	8,823	217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43	3.40	-0.03%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178.5	1,155.9	-22.6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1,759.8	1,823.1	63.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0월7일	10월13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82.97	86.51	3.54\$
	Dubai	78.06	73.14	88.80	100.35	103.94	3.59\$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03.52	310.97	7.45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